



제16호

북토크 툽!툽!툽!

발행일 : 2015.12.09

발행인 : 북토크툽



♣ 16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 1면 ~ 4면 -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 관련 도서목록
- 5면 - 서평 : 도토리 사용 설명서(공진하/한겨레아이들)
- 6면 - 서평 : 엄마 사용 설명서 + 엄마 사용법
- 7면 - 한국고전 : 흥길동전
- 8면 - 외국고전 : 제인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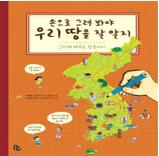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5학년 1학기 사회 관련도서 -

책정보 (전집)	관련 단원		
	눈으로 보는 정치경제 /교원	26.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교원	24. 갈라져 있는 형제, 북한	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눈으로 보는 우리 역사 /교원	32. 해방과 분단 34. 발전하는 대한민국	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탄탄 역사속으로 /여원미디어	48. 민주화 시대 사람들	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손에 잡히는 사회교과서 /길벗스쿨	1. 우리 생활과 환경 5. 경제 7. 지도 15. 지형과 생활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 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구석구석 우리나라 지리 여행 (양승현 글/마이신 그림/아이앤북/2015)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
	독도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 (안현경 지음/우지현 그림/비룡소/2013)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
	손으로 그려 봐야 우리 땅을 잘 알지 -그리며 배우는 한국지리 (구혜경, 정은주 지음/김효진 그림/토토북/2011)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
	한국 지리 이야기 :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17 (이광현, 주다현 지음/김영랑, 권성호 그림/가나출판사/2014)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
	비무장지대 (김훈이 글/장동일 그림/주니어김영사/2008)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
	지구사용설명서 : 외계인 막쓸레옹, 쓰레기별에서 탈출하다 (우쿠더스지구이주대책위원회 글/김지민 그림/한솔수북/2011)	2단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애들아, 왜 지구가 아픈지 아니? (안드레아스솔롬베르거 글/크리스토퍼펠레너 그림 /토토북/2015)	2단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조금만 불편하면 지구가 안 아파요 (김경선 글/김다정 그림/팜파스/2014)	2단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재미있는 환경 이야기 :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12 (허정림 글/김영랑 그림/가나출판사/2013)	2단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p>아낄수록 밝아지는 에너지 (박주혜 글/김규준 그림/ 동아사이언스/2013)</p>	<p>2단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p>
	<p>베드제드에 가다 (조양희 글/정인출판사/2014)</p>	<p>2단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p>
	<p>(발견하고 이해하고 체험하는) 초등경제콘서트 (리비아나 포로팻 글/스테파노 토네티 그림/ 상수리/2012)</p>	<p>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p>
	<p>생각학교 초등 경제 교과서 1-5 (김상규 글/박기종 그림/ 사람 in/2011)</p>	<p>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p>
	<p>똑!소리 나는 경제 (양팡때 글/울타리 지음/최지경 그림/ 씽크하우스/2009)</p>	<p>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p>
	<p>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 (배성호 글/김보미 그림/청어람주니어/2010)</p>	<p>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p>
	<p>경제를 알면 정말 부자가 되나요? (함윤미 글/홍성지 그림/예림당/2013)</p>	<p>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p>
	<p>대한민국 경제의 역사 (석혜원 지음/지문 그림/아이앤북/2014)</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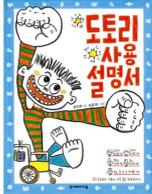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p>여기는 한반도 (김경희 글/푸른감성 그림/과학동아북스/2013)</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p>(졸아?나빠?)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안 글/최혜영 그림/과학동아북스/2013)</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p>미디어는 왜 중요할까요? (이인희 글/박종호 그림/어린이나무생각/2012)</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p>새터민 이야기 (한경희 글/신나경 그림/거인/2013)</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p>행복한 한국사 초등학교 10 :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한상언 그림/ 휴먼어린이/2010)</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p>공부가 되는 사회 2 : 경제 (조한서 지음/아름다운사람들/2015)</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p>자본주의 논쟁 (전지은 글/박종호 그림/풀빛/2015)</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p>마주보는 한국사 교실 8 : 새 국가 건설에 나서다 (배경식 지음/하태준 그림/웅진주니어/2011)</p>	<p>4단원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p>



공진하는 1972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서울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내 이름은 이순덕》, 《벽이》, 《청아, 청아 눈을 떠라》 등이 있습니다.

- 교보문고 작가소개 인용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움 세상

(도토리 사용 설명서/ 공진하 글, 김유대 그림/한겨레아이들/2014)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은하

중증 장애아 유진의 이야기이다. 장애인을 다룬 다른 책과는 달리 이곳에서 주요 화자는 장애인인 유진이다. 중증 장애인이라 팔, 다리를 쓰지 못해 데굴데굴 굴러다니다고 붙여진 별명 ‘도토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드린 성격이 밝고 적극적인 유진이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려 준다. ‘...하지않 내가 시간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는 진짜 이유는 스스로 시계를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무척 신기하고 재밌기 때문이다.....“(pp.11)

이 대목에서 주인공은 그동안 시계를 읽지 못하다가 아침에 엄마가 깨울 때 보여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읽게 되자 깨달음의 기쁨에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다.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진이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 기쁨과 부끄러움, 당황함 등등 많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배움의 열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유진이는 자신의 요구할 때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울기만 하던 유진이는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면 주먹을 쥐면 좋아할 때, 검지 손가락을 펴면 오줌이 마려울 때, 손가락을 모두 펴면 도토리가 싫어할 때라는 기호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잘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번 만 더 생각하면 그들을 화가 나게 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무관심이 그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 자신에게 가책이 되었다.

장애우를 도와줘야하는 평범한 어린이들이 읽으면 장애우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며 장애우 본인이 읽었을 때도 자신의 장애를 불만 하거나 낙심만 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각보다 쉽게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작가가 장애인 학교의 교사라서인지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이 통합의 세상으로 가는 길을 잘 알려 주는 거 같다.

생각나누기

1. 유진이는 자람학교라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입니다. 유진이는 친구들과 같이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특별한 조종장치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 입장에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일반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2. 유진이는 자신이 태어난 그 순간에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보물을 선물 받았다는 엄마의 말에 어버이날 자신이 엄마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왜 자신이 엄마에게 선물해야냐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유진이의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김성진]

2010년 제1회 KB창작동화공모 최우수상과 한국 안데르센상을 받았다. 『엄마 사용법』으로 제16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창작 부문(저학년) 대상을 받았다.

[이토 미쿠]

광고에서부터 교육, 보육, 복지, 먹을거리에도 관심이 많아 폭넓게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전국아동문학동인연락회 ‘계절풍’ 동인이며 <마음씨 좋은 사진>으로 제37회 JOM0동화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교보문고 작가스게 인용-



엄마, 행복 결정체

(엄마 사용법/김성진 지음/김중석 그림/2012년/ 창비)

(엄마 사용 설명서/이토 미쿠 지음/고향옥 옮김/조운주 그림/2015/우리교육)

서울신림초등학교 사서교사 민기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임스 오펜하임은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고 이야기 했으며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인간은 자신의 행복의 창조자다.’ 라고 정의했다. 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을 생각해 보면 결국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어린 아이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행복을 만들까?

여기 행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김성진 작가의 『엄마 사용법』에 등장하는 현수는 엄마가 없다. 그래서 엄마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아빠에게 “엄마 생명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 힘들게 얻게 된 “엄마 생명장난감”을 열심히 조립하지만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현수가 원하는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현수는 안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엄마를 원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오는 엄마! 현수는 과연 원하는 엄마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엄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엄마의 행동이 현수에게는 간절한 소망이다. 엄마와 관련된 또 한 권의 책 『엄마 사용 설명서』는 김성진 작가의 책과 비슷한 제목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다. 이 책은 좀 더 현실적으로 엄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데쓰야는 “우리 엄마”라는 제목의 글로 별을 다섯 개나 받는다. 그 글에 부모님의 감상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은 데쓰야는 아빠에게 작문을 보여준다. 데쓰야의 글은 엄마에 대한 불평과 바람이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잔소리꾼 엄마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쓰야에게 아빠는 엄마를 잘 관찰해 보라고 하고, “엄마 사용 설명서”라는 문서를 만들게 된다. 문서를 만들며 엄마를 면밀히 관찰한 데쓰야는 엄마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두 책의 공통점은 엄마를 주제로 하였다. 엄마를 주제로 한 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는 뜻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원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엄마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중학년 이상 학생과 엄마들이 읽고 엄마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보면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나올 만하다.

생각나누기	
1.	가즈의 엄마는 가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가즈에게 불편한 것이 없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항상 살펴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즈 엄마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데쓰야는 엄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대한 관찰로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경험을 이야기해보세요.



**한국고전
- 홍길동전**

『조선왕조실록』에는 ‘길동’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실존 인물을 토대로 작성한 한글 소설로 알려져 있다. 『홍길동전』은 허균이 작가로 알려져 있으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 다만 택당 이식(1584~1647)의 문집에 “허균이 홍길동을 지어 (중국의)수호지와 견주었다.”고 나와 있고 이 기록이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필사본과 활자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활자본은 다시 경판본, 완판본으로 나뉜다. 필사본에 비해 활자본은 비약과 생략이 심한 편이다. 경판과 완판본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비슷하나 이름과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독자층에 따라 중점 이야기가 다르다. 즉 사대부 부녀자와 중인이 많이 읽는 경판본은 적서차별에 중점을 두고, 완판본은 탐관오리의 부패와 수탈에 중점을 두어 농민과 상민이 많이 읽었다. [출판사 창비, 휴이님 해설 참고]

출판사별	출판사별 책의 특징
 <p>정종목 글 이광익 그림 창비</p>	재미있다 우리고전 시리즈이다. 이 책은 활자본과 필사본 중 김동욱 교수 89장 필사본을 주로 인용하여 구성이 탄탄하고 묘사가 풍부하다. 또한 이윤석 교수님이 수집해 담아놓은 11종의 이본들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경판이나 완판 등 다른 많은 이본들에서 거론한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p>김남중 글 윤정주 그림 웅진주니어</p>	웅진주니어의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이다. 중간에 만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다른 책에 비해 작은 판형으로 글씨 크기도 커서 저학년학생들도 읽을 만하다. 중간 중간에 다른 필체가거나 구불구불하게 써서 이목을 끌고 있으나 그 낱말이 특별히 중요한 말인 것은 아닌 것 같다. 홍길동전에 대한 설명이 없고 본문만 있어 좀 아쉽다.
 <p>전윤호 글 최정인 그림 주니어김영사</p>	우리나라 대표 시인과 소설가, 동화작가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알기 쉽게 풀어 쓴 <한국고전문학읽기> 시리즈 첫 번째 책이다. 그래서인지 어렵거나 어색한 낱말 없이 줄줄 읽게 된다. 글씨가 좀 작아서 저학년에게는 권하기 어렵겠다. 책 뒤에 홍길동전 해설은 홍길동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p>김상순 글 박철민 그림 두산동아</p>	참 좋은 우리고전 시리즈 첫 번째 책이다. 19세기 중반 서울에서 간행된 24장짜리 목판본을 토대로 약간의 살을 보태었다. 흥 판서의 첩을 초란, 길동의 어머니를 춘성, 흥 판서의 첫째 아들을 흥인형으로 이름을 써, 인물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부록에는 비슷한 내용의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심 진사’를 실어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중학년 이상이면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p>이민영 글 김순영 그림 휴이님</p>	역사로 통하는 고전문학 5번째 이야기이다. 이 시리즈는 들어가기, 쉬어가기, 고전 파헤치기를 두어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쉬운 말로 풀어쓰고 이야기 말미에 각주를 두어 술술 읽힌다. 완판본을 기본 줄거리로 하여 첩과 형의 이름이 초란과 길현으로 표현되고, 율도국을 세운 곳이 성도, 홍길동이 도를 닦아 하늘로 올라갔다고 표현되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삽화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p>초록글연구회 글 윤정주 그림 청솔</p>	새롭게 읽는 좋은 우리 고전 8번째 책이다. 어느 판본을 기본으로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2,3,4학년 어린이들도 읽기 쉽게 의역을 했으며, 삽화를 적절히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작가 소개(허균)

(1569-1618) 호는 교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소설가이다. 광해군 폭정에 항거하여, 1618년 재산을 몰수당하고 참형되었다. 시문에 뛰어난 천재로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동생이다. <교산시화>, <성소부부고>, <학산초담>, <한정록> 등이 있다. -두산동아 참조-

생각 나누기

1. 홍길동은 활빈당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 부정축재한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런 홍길동의 행동은 백성을 위한 행동이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쨌든 남의 물건을 탈취했으니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나요?
2. 홍길동은 어머니의 비천한 신분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호부호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사례를 이야기해보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봅시다.



외국고전 - 제인에어

영국 문학에서 최초로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로맨스 소설의 고전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 사랑과 욕망에 대한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샬롯 브론테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엄격한 윤리관이 지배하고 있던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이 쓴 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질 편견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1847년 ‘커러 벨’이라는 남성 필명으로 이 소설을 발표하였다. 제인 에어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짜여진 이 소설은 당당함과 성실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사랑을 찾게 된 제인 에어의 삶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 정감 어린 대사, 그리고 극적인 반전 등으로 펼쳐 보인다.

[인터넷 교보 문고 제공]

출판사별 책의 특징

	<p>이해경 옮김 천은실 그림 푸른숲주니어</p>	<p>원문을 그대로 옮겨놓는 대신 작품의 분디 재미와 맛은 살리면서도 청소년들이 읽고 소화하기 쉽도록 다듬어 놓은 ‘평권 리더스 시리즈’를 원전으로 삼은 책이다. 본문 뒤에 현직 국어교사의 작품에 대한 해설 및 글의 배경, 작가의 소개와 사진자료를 실어 배경 시대 및 작가와 더불어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작의 깊은 맛을 100% 느끼기에는 원가 부족하지만 아동, 청소년 독자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맛보기에는 추천할 만하다.</p>
	<p>이지원 여음/송재호 그림/계림</p>	<p>400쪽짜리 2권 분량의 원본을 약200쪽으로 줄였다.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옷차림, 몸짓을 하나하나 글로 표현한 원본에 비해 인물의 이름과 특징정도만 표현하였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진다. 그러나 원본의 아름다운 표현이 너무 생략되어 책의 진가를 잘 알려 주지 못한다. 책의 뒤편에 독자의 눈썰적 사고를 돕기 위한 질문지가 있어 책을 다 읽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내용자체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워 미래에 다시 한번 읽는 것을 약속하고 간단하게 표현된 책을 읽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p>
	<p>캐시 미첼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시공주니어</p>	<p>무려 350페이지에 달하는 네버랜드 클래식 26번째 책이다. 작가와 작품 소개 내용이 충실하며, ‘캐러 벨’이라는 필명으로 쓴 샬롯 브론테의 서문도 함께 실려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작품을 번역한 햇살과 나무꾼은 작가의 중후하면서도 간결한 문체가 잘 드러나도록 옮겼으며, 작품 안에 나오는 불어를 함께 표기해 어린이들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너무 두꺼운 탓에 1,2권으로 분권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가독성에 도움이 될듯하다.</p>
	<p>박희성 옮김 김선진 그림 대교출판</p>	<p>차례에 소재목을 붙여 이야기의 흐름을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어린이 수준에 맞게 쉬운 말로 풀어 써 읽기에 부담이 없다. 원본의 긴 이야기가 생략되어 흐름이 끊기는 점이 아쉽지만 긴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개한 부분은 가독성을 높인다. 책의 말미에 “명작 따라 세상보기”와 작가의 작품소개는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p>
	<p>한지윤 옮김 보물상자</p>	<p>한 권 안에 1,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673페이지로 구성됐다. 비교적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 19세기 유럽 영국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많은 페이지에도 불구하고 읽는 내내 긴장감을 주고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으나 어휘의 수준이 어린이가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거 같다. 책의 재미를 알기에는 독서력이 있는 청소년이 읽기를 권장한다.</p>

작가 소개(샬롯 브론테)

1816년 4월 21일 요크셔 주의 손턴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스물여섯 살 되던 해에 샬롯은 학력을 키우기 위해 에제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샬롯은 기숙학교의 교장인 에제에게 연정을 품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제는 『제인 에어』에서 로체스터 씨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각고의 노력 끝에 첫 장편소설인 『교수』를 완성한 뒤 1847년 10월 마침내 『제인 에어』를 출간하게 된다. 1854년 샬롯은 서른아홉 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목사인 아서 벨 니콜스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임신을 한 상태에서 기침과 고열이 겹치는 바람에, 1855년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생각 나누기

1. 에어는 가난은 낙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끼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어라면 가난한 친척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소외당하면서도 부유한 외숙모와 함께 살 것인가요?
2. 에어는 게이츠헤드를 떠나 로우드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중앙에 세워놓고 처벌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토크톡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8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2016년 3월에 발간됩니다.